

아무도 몰랐던 물레발명이야기

「휴그머」의 종이컵

권기철 김만재

남자의 제지거나 불리우는 가을... 바타리코트와 귀피한면이면 일한 분위기는 잡힌다.



허나 이때...



이런듯 9월날 음용라판기 시대를 꽃피우는데 일동공신을 한 종이컵.

이런듯 일생활에서 손쉽게 쓰이는 종이컵은 과연 어떻게 발명되었을까?



글쎄요! 안그래도 머리 아프고!



당시 발명가였던 휴그머의 형은 생수 자동판매기를 발명하였다.

허나 기대했던 '생수 자동판매기'는 예상밖으로 복잡한 판매율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휴그무어는 곧바로 문제 해결에
들어났다. 그러고는...



그러고는 그는 역사적인 종이컵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사육영 왕사의 말 한마디라는 것은 바로~!



사실 휴그무어의 제안에 그의 해운
곳방귀를 꾸덕지만 그는 곧 물에
쉽게 젖지 않는 데불릿 종이를 찾아냈다.



하지만 종이컵의 발명이
곧바로 그들의 사업성공으로
이루어질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사건이 있었으니...



이로 인해 휴그무어의 종이컵은 날개돋힌듯
팔려나갔고 1920년에는 아이스크림용
종이통기까지 만들어 오늘날 세계적인
발명품이 된 것이다.

